

CEO Report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2013. 7

동향분석실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요 약

2013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출구전략 계획 발표, 일본의 아베노믹스 부작용 발생, 중국의 신용거품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2012년에 비해 0.1%p 높은 3.3%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

국내 경제는 주택시장 침체 및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임. 세계경제의 제한적 회복,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경우 2013년 국내 경제는 당초(이하 2012년 말) 예상과 같이 2012년보다 0.5%p 높은 2.5%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문제, 중국경제 성장률 하락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적지 않아 하방위험이 상방위험보다 더 클 것임. 2013년 소비자물가는 내수부진 지속,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의 소비자물가 안정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0.5%p 낮은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으나 미국의 출구전략 계획 발표에 따라 외국인의 국채 수요가 감소하고 추경으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국고채 금리(3년 만기)는 당초 예상과 같이 2013년 상반기 2.7%, 하반기 2.9% 전망됨. 원/달러 환율은 아베노믹스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영향을 받아 당초 예상보다 62원 높은 1,112원(2013년 연평균)이 될 것으로 보임.

FY2013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당초 예상보다 0.4%p 높은 6.9% 증가할 것으로 보임. 먼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FY2012 21.2% 증가한 기저효과로 인해 FY2013 3.8% 증가에 그칠 것으로 당초 예상되었으나 이보다 2.5%p 높은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세제 개편에 따른 비과세 저축성보험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저축성보험이 FY2013 8.1% 성장하고, 보장성보험도 종신보험 수요 증가와 암보험 등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 등으로 FY2012에 이어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한편, 초회보험료의 경우 저축성보험은 기저효과로 40% 정도 감소할 것이나, 보장성보험은 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반해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가 FY2013 10.3% 증가할 것으로 당초 예상되었으나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의 성장세 둔화로 8.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종목에서 초회보험료가 감소하고 있고 FY2012의 기저효과로 10.3% 성장할 것으로 보임. 연금부문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어 7.9% 성장이 예상됨. 일반손해보험은 설비투자,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FY2012와 유사한 6.1% 성장이 전망됨. 자동차보험 역시 보험료 인상이 어렵고 대당보험료 감소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FY2012의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벗어나나 1.7% 성장에 그칠 것임.

하반기 보험회사 경영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첫째, IT 기술 발달, 겸업화로 인한 경쟁 심화, 소비자보호 강화 등 판매채널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에 부합한 채널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둘째,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은 보험회사의 평판리스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보험회사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고객정보관리를 핵심경영요소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일반손해보험의 재보험 활용도 및 집중도가 높아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가 요구됨. 국제적 정합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 및 보고요건 강화, 법규체계 정비 등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 노력이 필요함. 넷째, 감독당국이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유상증자, 이윤확보, 위험가중치 조정 등을 통한 자율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감독당국은 재무건전성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준비금,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다섯째, 개인연금 수요가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회사는 개인연금 수요 확대와 관련하여 저금리 장기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CONTENTS

I. 실물경제·금융 환경	1
1. 해외경제	1
2. 국내실물경제	7
3. 국내금융시장	14
II. 국내보험시장	16
1. 주요지표	16
2. 생명보험	18
3. 손해보험	28
III. 보험회사 경영과제	42
1. 미래환경 변화에 부합한 채널 전략	42
2. 개인정보관리를 통한 평판리스크 대비	43
3. 재보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법제 마련 ...	45
4.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추진 대비	46
5. 저금리 장기화에 대비한 개인연금 리스크 관리 강화	47
〈부록 1〉 2013년 수정 경제전망 설문조사 결과	49
〈부록 2〉 생명보험회사 설문조사 결과	50
〈부록 3〉 손해보험회사 설문조사 결과	51
〈부록 4〉 FY2013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전망	52
〈부록 5〉 FY2013 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전망	52

I. 실물경제·금융 환경

1. 해외경제

■ 2013년 1/4분기 세계경제는 유로지역의 경기침체 지속 및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 개선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음.

- 1/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전분기대비)은 세금 인상¹⁾과 정부지출 축소에도 민간소비와 주택투자가 회복되면서 2012년 4/4분기 보다 0.5%p 상승한 0.5%를 기록함.
- 유로지역의 경우 키프로스 구제금융 지원 및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주요 재정위기 국가들의 재정긴축으로 1/4분기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하며 경기침체가 지속됨.
 - 이에 5월 2일 ECB는 정책금리를 0.25%p 하향조정하였고, 단기유동성공급정책(MRO: Main Refinancing Operation)을 2014년 7월 8일까지 연장하였음.
- 1/4분기 일본경제는 적극적인 아베노믹스²⁾ 시행으로 전분기대비 0.9% 성장하였음.
 - 적극적인 양적완화조치로 엔화가치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1/4분기

1) 사회보장세 감면 종료, 부유층 증세 등 세금 부담 증가

2) ①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한 물가상승률 2% 달성(금융완화), ② 13조 1,000억 엔 규모의 추경을 통한 공공투자 확대(재정정책), ③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성장전략) 등 크게 3가지 정책으로 구성됨.

총수출은 전분기대비 3.8% 증가하는 등 2012년 4/4분기(-2.9%) 부진에서 큰 폭으로 회복되었음.

- 중국경제는 가계소비 부진으로 전기대비 1.9%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었음.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3.2%를 기록한 후 2% 초반대로 안정되었음.
 - 2013년 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 증가에 그쳤고 유럽,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각각 1.6%, 9.7% 감소하였는데 이는 위안화 평가 절상, 유럽수요 회복 부진 등에 기인함.

표 I-1 세계경제 성장률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세계 ¹⁾	0.9	0.9	1.0	0.6	3.9	0.9	0.6	0.7	0.7	3.2	-
선진국 ¹⁾	0.2	0.3	0.6	0.3	1.6	0.5	0.1	0.3	0.2	1.3	-
신흥국 ¹⁾	1.8	1.6	1.6	1.0	6.3	1.4	1.3	1.2	1.7	5.1	-
미국 ²⁾	0.0	0.6	0.3	1.0	1.8	0.5	0.3	0.8	0.0	2.2	0.5
유로 ²⁾	0.6	0.2	0.1	-0.4	1.4	-0.1	-0.2	-0.1	-0.6	-0.6	-0.2
일본 ²⁾	-1.9	-0.7	2.5	0.1	-0.6	1.5	-0.2	-0.9	0.0	2.0	0.9
중국 ²⁾	2.2	2.5	2.4	1.7	9.3	1.5	2.0	2.1	2.0	7.8	1.9

주: 1)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83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타이완 외 32개국
/ 신흥국: 멕시코, 이란 외 149개국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3. 4).

2) Bloomberg.

■ IMF는 2013년 세계경제가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2012년보다 0.1%p 높은 3.3%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음.

- IMF는 유로지역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이며, 신흥국 및 개도국은 각국의 내수부양정책에도 회복세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함.

- World Bank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로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경제성장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함.

표 1-2 전망기관별 2013년 세계경제 전망

전망기관 (전망시점)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로 지역	일본	독일	중국
IMF (2013. 4)	3.3%	1.2%	5.3%	1.9%	-0.3%	1.6%	0.6%	8.0%
OECD (2013. 5)	-	-	-	1.9%	-0.6%	1.6%	0.4%	7.8%
EU (2012. 5)	-	-	-	1.9%	-0.4%	1.4%	0.4%	8.0%
World Bank (2013. 6)	3.2% ¹⁾	1.2%	5.1%	2.0%	-0.6%	1.4%	-	7.7%

주: 1) 2005년 기준 PPP(Purchasing Power Parity)를 가중치로 평균한 것임.

자료: IMF(2013. 4), World Economic Outlook; OECD(2013. 5), OECD Economic Outlook; EU(2013. 3), European Economic Forecast; World Bank(2013. 6), Global Economic Prospects.

- 미국의 경우 주택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이나 재정 감축의 영향으로 1.9~2.0%의 성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 미국의 주택경기는 주택수요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신규주택건설 증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주택가격 상승으로 2013년 1/4분기 가계 순자산은 2012년 4/4분기에 비해 3조 달러 증가한 70조 4,000억 달러로 하반기에도 민간소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주택투자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과 미국 내 셰일가스 및 원유생산 증가로 물가가 안정되면서 소비자의 실질구매력 증가로 이어질 것임.

- 유로지역의 경우 재정위기 지속, 디레버리징 및 고용 부진에 따른 소비감소 지속으로 2012년 -0.6% 성장에 이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 IMF는 유럽의 경우 민간수요 확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공격적인 통화정책과 금융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유로지역 국채금리 하향 안정과 유로화 약세, 추가 금융완화 가능성 등은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IMF는 일본의 적극적인 내수부양책과 엔저에 따른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로 2013년 성장률 전망을 1월 1.2%에서 4월 1.6%로 상향조정하였음.
 -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로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국채금리 상승이 지속될 경우 경기가 다시 둔화될 가능성도 있음.
- 중국의 경우 신정부가 고도성장보다는 개혁과 구조조정정책³⁾을 시행 하면서 2012년과 유사한 수준인 7.8~8.0% 성장할 전망이다.
 - 적극적인 재정정책⁴⁾으로 투자와 소비 둔화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가 급등할 경우 중국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긴축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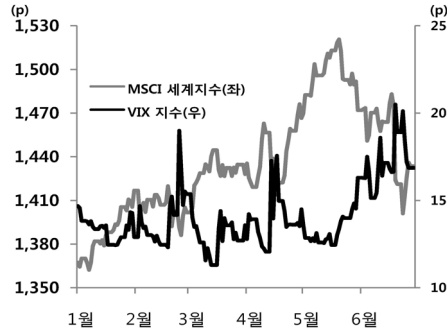
■ 2013년 1/4분기 글로벌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2/4분기 들어 일본의 양적완화와 미국의 출구전략 우려가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음.

- 2013년 초 VIX지수는 12.0~14.0 사이에서 안정적이었으나 5월 22일 Fed의 출구전략 언급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세계 주가는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며 변동성도 확대되었음.

3) 2013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 방향은 ① 민생개선: 사회보장제도 강화 및 소비진작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 ② 물가안정: 유통구조 및 시장가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물가 목표치 하향, ③ 질적성장: 민간부분의 소비 확대를 주도하되, 투자의 질과 효율성 개선 촉구 등 세 가지임.

4) 중국은 2013년 1조 2,000억 위안의 적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임.

그림 I-1 VIX지수 및 주가지수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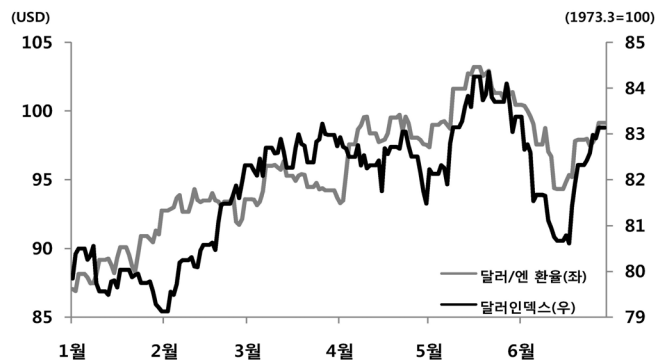
그림 I-2 10년 만기 국채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 2013년 상반기 미국 국채금리(10년 만기)는 1.7~2.1% 수준을 유지하다 유로지역 위기감 고조로 1.6%까지 하락하였으나 미국의 출구전략 가시화로 2.6% 수준까지 급등하였음.
- 한편, 하락세를 유지하던 일본의 장기국채금리는 아베노믹스 실시로 4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I-3 2013년 초 이후 달러인덱스와 달러/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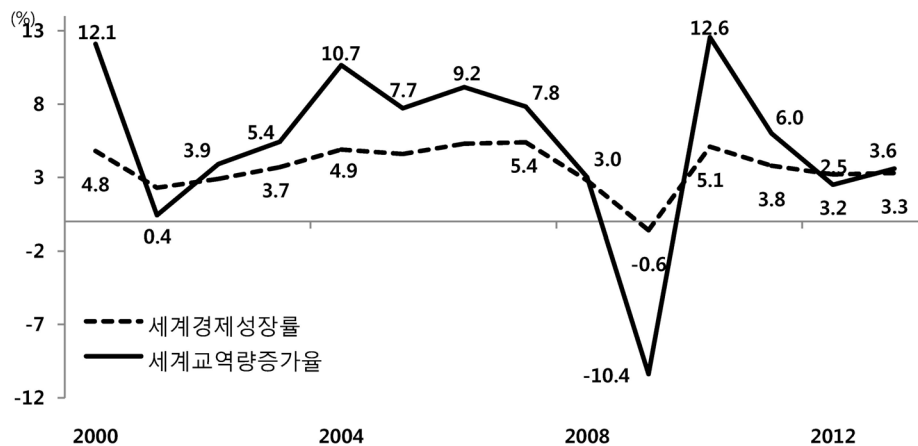
주: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달러, 크로네(스웨덴), 프랑(스위스) 등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1973년 3월을 기준점(100)으로 하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에서 작성·발표함.

자료: Bloomberg.

- 아베노믹스, 미국의 출구전략 우려와 세계경제 회복 지연 등으로 안전 자산 선호가 확대되며 달러화 가치는 상승하였음.

- 미국과 일본의 소비가 회복되면서 전년대비 세계교역량 증가율은 2012년 2.5%에서 2013년 3.6%로 1.1%p 상승할 전망이다.⁵⁾

그림 I-4 세계경제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율 추이



자료: IMF.

- 2013년 국제유가는 원유수요 증가세 둔화와 미국의 셰일 가스, 셰일 오일 개발로 2012년보다 2.3% 하락할 전망이다.⁶⁾

- 에너지정보청(EIA)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경제 회복이 완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3년 세계 원유수요는 2012년 대비 0.9%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함.⁷⁾

5) IMF(2013. 4), World Economic Outlook.

6) IMF(2013. 4), World Economic Outlook.

7) EIA(2013. 6), Short-term energy outlook, 2012년 세계 원유수요는 1일 8,916만 배럴이었으며, 2013년 세계 원유수요는 1일 9,003만 배럴로 예상됨.

- 셰일오일 및 셰일가스 개발로 국제유가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⁸⁾

(채원영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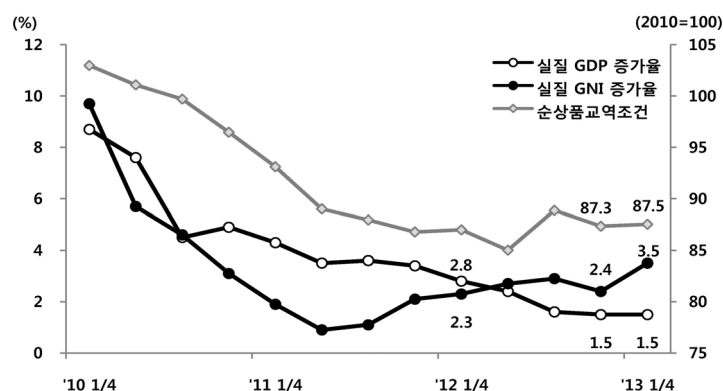
2. 국내실물경제

〈성장 및 내수〉

- 2013년 1/4분기 국내경제는 전년동기대비로는 2012년 4/4분기와 같은 1.5% 성장하는데 그쳤으나 전기대비로는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함.

- 전기대비성장률은 0.8%로 2012년 4/4분기 0.3%보다 0.5%p 상승하였음.
- 전년동기대비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교역조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2012년 4/4분기 2.4%보다 1.1%p 상승한 3.5%를 기록하였음.

그림 I-5 국내총생산 및 총소득의 성장률과 순상품 교역조건



주: 실질 GDP와 실질 GNI는 원계열,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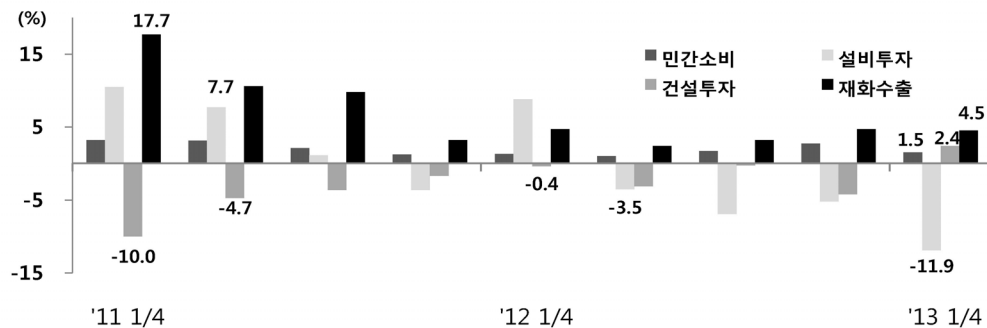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8) 세계은행은 2013년 평균 유가가 배럴당 102달러로 2012년 105달러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며 셰일오일 공급 증가로 유가는 장기간에 걸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 지출항목별로는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민간소비가 더욱 부진해지고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2013년 1/4분기 민간소비는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어 2012년 4/4분기 2.7%보다 1.2%p 하락한 1.5% 증가에 그쳤음.
-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유로지역 경기 침체 지속, 미국 재정긴축 시행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안요인으로 11.9% 감소함.
- 재화수출은 2012년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2013년 1/4분기 4.5% 증가하였으나 재화수입은 내수부진으로 1.5% 늘어났음.

그림 I-6 국내 분기별·지출항목별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2013년 국내경제는 내수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세계경제의 제한적 회복과 교역량의 완만한 증가로 수출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 2012년보다 0.5%p 높은 2.5%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민간소비는 물가안정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주택시장 침체 지속으로 2012년 대비 0.1%p 상승한 1.8%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국내총소득이 증가하고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민간소비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임.
 - 투자 부진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는 가계소득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음.
 -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본격화될 경우⁹⁾ 민간소비와 투자 둔화세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 2013년 1/4분기 민간소비가 전기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3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이에 2013년 민간소비는 기존¹⁰⁾ 전망치 1.7%에서 0.1%p 상향조정한 1.8%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건설투자의 경우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¹¹⁾과 발전시설 건설 증가¹²⁾로 2.5%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 건설투자는 당초¹³⁾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3%p 상향 조정함.

9)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1/4분기 중 자금순환」에 의하면 2013년 1/4분기 말 기준 가계의 차입금액이 2012년 말보다 1조 7,000억 원 감소한 1,157조 1,000억 원으로 나타났음. 2013년 1/4분기 중 가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하였는데 가계 월평균소비지출은 오히려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하였음. 가계가 소비와 부채를 동시에 줄이는 디레버리징 현상이 시작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10) 이하 기준은 2012년 말 수행한 전망을 의미함.

1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3.4.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12) 전력공급 확충을 위한 발전시설 건설 증가로 발전시설 착공면적 증가율이 큰 폭으로 확대됨. (발전시설 착공면적: 2011년(YoY 25.9%)→2012년(YoY 445.9%))

13) 이하 당초는 2012년 말 수행한 전망을 의미함.

- 그러나 건설투자 선행지표 부진 지속¹⁴⁾, 건설사 자금사정 악화 및 주택 시장 부진 지속, 정부의 SOC 투자 관련 예산안 삭감¹⁵⁾ 등으로 증가폭은 둔화될 가능성도 있음.

■ 2013년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 대외 경제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2.7%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¹⁶⁾이 하반기 이후 기업의 투자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당초 전망보다 세계경제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의 출구전략 논의, 엔저 지속 등으로 2013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당초 예상 3.6%에서 0.9%p 하향된 2.7%로 전망됨.
 - 당초 하반기 세계경제 회복세로 인한 수출 증가, 이로 인한 설비투자 수요 증가와 기저효과를 감안하여 3.6%를 전망하였음.
 - 그러나 세계경제가 비록 회복 중이나 2012년 12월 전망 당시보다는 회복세가 미약하고,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논란과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져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고용〉

■ 2013년 1/4분기 노동시장은 2012년 4/4분기에 비해 고용 개선 추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4월과 5월에도 지속되고 있음.

- 2013년 1/4분기 총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하였으나 증가폭

14) 건설수주(전년동기대비, %): 2013년 1월(-52.7%) → 2월(-47.0%) → 3월(-20.7%) → 4월(-20.6%)

15) 정부는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SOC 투자 관련 예산을 11조 6,000억 원 삭감함.

16) 기획재정부가 5월 1일에 발표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중소기업 노후설비 교체 자금 지원 등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이 0.3%p 줄었으며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1.7%p 하락한 57.7%,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8%p 상승한 3.6%를 기록하였음.

- 4월과 5월 고용률은 각각 59.8%, 60.4%로 나타났으며, 실업률은 3.2%, 3.0%를 기록하였음.

■ 2013년 고용률은 2012년보다 0.4%p 하락한 59.0%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0.2%p 증가한 3.4%로 전망됨.

- 설비투자 회복속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하고 정부의 일자리 중심정책¹⁷⁾ 효과도 2015년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고용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함.

〈물가〉

■ 2013년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화강세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1.4%를 기록하며 하향 안정세를 보였음.

- 전가수도·가스과 집세를 제외한 농축수산물 가격 및 공업제품 가격 상승폭 축소로 4월과 5월에도 각각 1.2%, 1.0%로 안정세를 지속하였음.

■ 201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내 경기회복 속도 부진,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 중국 소비자물가 안정 등의 영향으로 2.0%를 기록할 전망이다.

- 하반기 버스, 택시,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전세가 상승 등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폭은 제한적임.

17) 「고용률 70% 로드맵」(2013.6.4)에 따르면 2013~2014년 인프라법·제도 구축 등 기반 조성을 통해 2015년 이후 고용률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중국의 소비자물가가 안정되었고, 국제 원자재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수입물가 측면에서도 물가 상승 요인은 크지 않음.
- 2013년 중 내수부진으로 수요 확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전망치 2.5%에서 0.5%p 하향 조정함.

〈대외거래〉

- 2013년 1~5월 통관기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한 2,299억 달러, 수입은 2.8% 감소한 2,15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는 140억 달러 흑자로 나타났음.
- 2013년 1~5월 화공품(10.0%), 전기·전자제품(13.7%)의 수출 증가율은 2012년 같은 기간¹⁸⁾보다 양호하여 아직은 엔저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2013년 1~5월 자본재 수입은 설비투자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하였음.
- 2013년 대외거래는 상품수출이 2012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 수출 증가율은 세계교역량의 완만한 회복과 기저효과로 2012년 0.1%에서 2013년 3.8%로 증가할 전망이다.
 - 엔화 약세 효과가 7개월 후 최고치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¹⁹⁾에 근거

18) 2012년 1~5월 수출증가율: 화공품(1.0%), 전기·전자제품(-5.8%).

19) 한국은행(2013. 4), 『한국은행 경제전망』.

하면,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감소는 2014년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전망이다.

- 상품수입은 기존 전망보다 소비 및 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예상보다 0.2%p 낮은 3.6% 증가할 전망이다.

(채원영 연구원)

표 I-3 국내 실물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F)	
				기존전망	수정전망
실질GDP 성장률	6.3	3.7	2.0	2.5	2.5
(명목GDP)	(10.2)	(5.3)	(3.0)	-	(4.0)
민간소비	4.4	2.4	1.7	1.7	1.8
건설투자	-3.7	-4.7	-2.2	1.2	2.5
설비투자	25.7	3.6	-1.9	3.6	2.7
재화수출	16.0	9.9	3.8	6.1	5.6
재화수입	18.4	8.6	1.5	5.4	4.0
실업률	3.7	3.4	3.2	3.3	3.4
(고용률)	(58.7)	(59.1)	(59.4)	(59.4)	(59.0)
소비자물가	3.0	4.0	2.2	2.5	2.0
경상수지(억 달러)	293.9	260.7	431.4	398.0	369.0
상품수지(억 달러)	400.8	316.6	383.4	398.0	408.2
상품수출(억 달러)	4,614.4	5,517.7	5,525.7	5,735.7	5,735.7
(증가율)	(28.8)	(19.6)	(0.1)	(3.8)	(3.8)
상품수입(억 달러)	4,213.6	5,201.1	5,142.3	5,337.7	5,327.4
(증가율)	(31.5)	(23.4)	(-0.9)	(3.8)	(3.6)

주: 2013(F)은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3. 국내금융시장

〈금리〉

- 기준금리는 경기 하방리스크가 우세함에 따라 5월 9일 25bp 인하되었으나 하반기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화 약세, 유로지역의 경기침체, 주요국 재정문제의 향방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우세함에 따라 경제주체의 심리를 회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함.
- 국고채 금리(3년 만기)는 출구전략 기대감으로 외국인의 국채 수요가 감소하고, 추경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 201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이 당초 2.5%에서 2.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국고채 금리가 낮아질 요인이 발생.
 - 그러나 미국의 출구전략 발표로 외국인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상반기 2.7%, 하반기 2.9%를 나타낼 전망이다.

표 I-4 국내 금리 및 환율 전망

(단위: %, 원)

구분	2011	2012	2013(F)					
			연간		상반기		하반기	
			기존 전망	수정 전망	기존 전망	실제치	기존 전망	수정 전망
회사채(AA-) 수익률	4.4	3.8	3.5	3.1	3.3	3.0	3.6	3.2
국고채3년 수익률	3.6	3.1	2.8	2.8	2.7	2.7	2.9	2.9
원/달러 환율	1,108	1,127	1,050	1,112	1,045	1,103	1,055	1,120

주: 기간 평균값.

〈환율〉

■ 하반기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2013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2012년 1,127원에서 15원 하락한 1,112원으로 예상됨.

○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과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원화 가치 상승 폭은 기존 예상에 비해 제한될 것으로 보여 2013년 원/달러 환율의 기존 전망치 1,050원에서 62원 상향조정함.

(채원영 연구원)

Ⅱ. 국내보험시장

1. 주요지표

■ FY2012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16.4%(농협포함 25.0%) 증가하였으나, FY2013에는 생명보험 기저효과와 손해보험 부진으로 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FY2012 생명보험은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급증으로 21.2%(농협포함 34.0%)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FY2013에도 제도요인 효과가 일부분 유지됨에 따라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6.3%의 양호한 성장이 전망됨.
- FY2012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역성장,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 성장세 둔화로 원수보험료가 9.4%(농협포함 12.0%) 증가하는데 그쳤으며²⁰⁾, FY2013에도 장기손해보험과 개인연금 성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8.0% 증가가 전망됨.

20) FY20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16.7%임.

표 II-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FY2012(E)		FY2013(기존전망)		FY2013(F)		CY2013(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106.5 (117.7)	21.2 (34.0)	106.9	3.8	125.1	6.3	126.4	7.4
손해보험	66.7 (68.3)	9.4 (12.0)	77.7	10.3	73.7	8.0	72.1	5.6
전체	173.2 (186.0)	16.4 (25.0)	184.6	6.5	198.8	6.9	198.5	6.7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FY2012(E)의 괄호 안 숫자는 농협보험을 포함한 수치임.

■ FY2012 보험침투도(수입보험료/명목GDP²¹⁾)는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경상GDP 성장률을 상회하면서 전년대비 0.4%p 상승한 14.9%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표 II-2 보험침투도 전망

(단위: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FY2012(E) 농협제외	FY2012(E) 농협포함	FY2013(F)
생명보험	7.0	7.0	7.0	8.3	9.2	9.4
손해보험	4.0	4.4	4.9	5.2	5.3	5.5
전체	11.0	11.3	11.9	13.5	14.5	14.9

주: 보험침투도 = 총보험료/명목GDP

21) 보험침투도의 명목GDP는 FY기준이며, FY2012 명목GDP는 4.4% 성장 전망.

- FY2013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²²⁾는 395만 8,000원으로 FY2012보다 6.4%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 밀도는 FY2012에 비해 5.8% 증가한 249만 1,000원, 손해보험 밀도는 7.5% 증가한 146만 8,0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표 II-3 보험밀도 전망

(단위: 천 원)

구분	FY2009	FY2010	FY2011	FY2012(E) 농협제외	FY2012(E) 농협포함	FY2013(F)
생명보험	1,579	1,698	1,765	2,129	2,354	2,491
손해보험	899	1,069	1,225	1,333	1,366	1,468
전체	2,478	2,767	2,989	3,463	3,719	3,958

주: 1) 보험밀도 = 총보험료/총인구 수

2) 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 2012년 11월 자료를 사용함.

(김세중 선임연구원)

2.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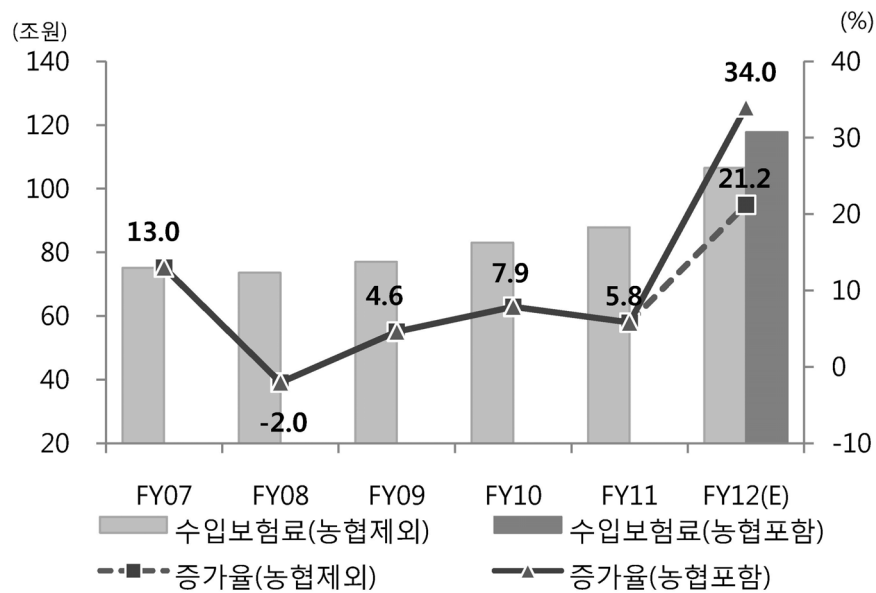
〈수입 보험료〉

- FY201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단체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요인으로 생존, 생사혼합보험 등 개인보험 수입보험료가 급증하면서 21.2%(농협포함 34.0%)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함.

22) 국민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보험밀도는 해당 국가의 보험 보급 및 보험산업 발전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임.

- 개인보험의 경우 세제개편²³⁾의 영향으로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수입 보험료가 모두 50%를 상회하는 급증세를 보이고 보장성보험 또한 소폭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23.6%(농협포함 37.6%) 성장함.

그림 II-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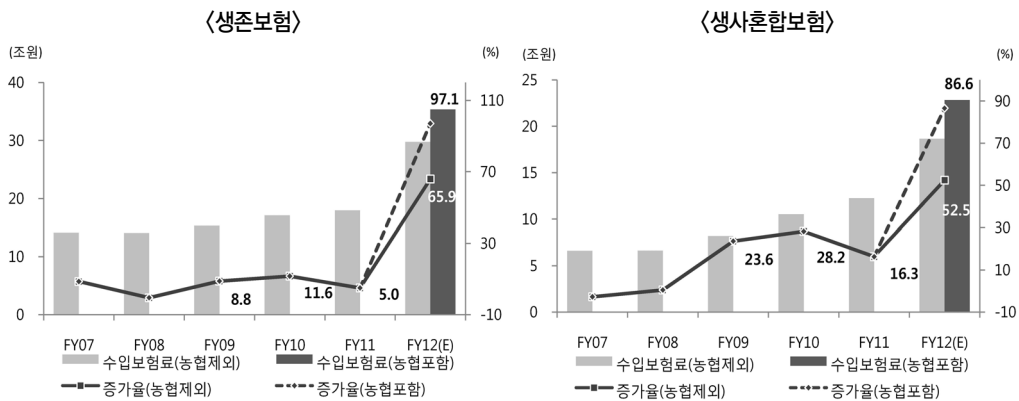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신규가입 둔화와 업권 간 경쟁 확대로 3.6% 감소함.
-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분기 해약률은 3%를 하회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FY2013 생명보험은 세제개편에 따른 저축성보험 수요가 상반기까지 유지되고 계속 보험료도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저효과로 인해 6.3% 성장이 전망됨.

23) 2012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3년부터 저축성보험의 10년 이내 중도인출분에 대한 세제혜택이 폐지됨.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²⁴⁾에 따른 비과세 저축성보험²⁵⁾수요는 최근까지도 확대되고 있으며, FY2013 상반기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즉시연금 과세강화 이슈 소멸로 인한 기저효과가 예상됨.
- FY2012 초회보험료 급증에 따른 계속보험료 유입도 예상되나 기저효과로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FY2012에 비해 대폭 하락할 것으로 보임.

그림 II-2 저축성보험 종목별 추이



- 한편 FY2013 초회보험료는 FY2012 개인 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40% 수준의 감소가 전망됨.
- 생존, 생사혼합보험의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FY201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3.7%의 저성장을 보일 것으로 2012년 말 전망하였으나 저축성보험의 고성장 지속을 반영하여 전망치를 6.3%로 상향 조정함.

24) 2013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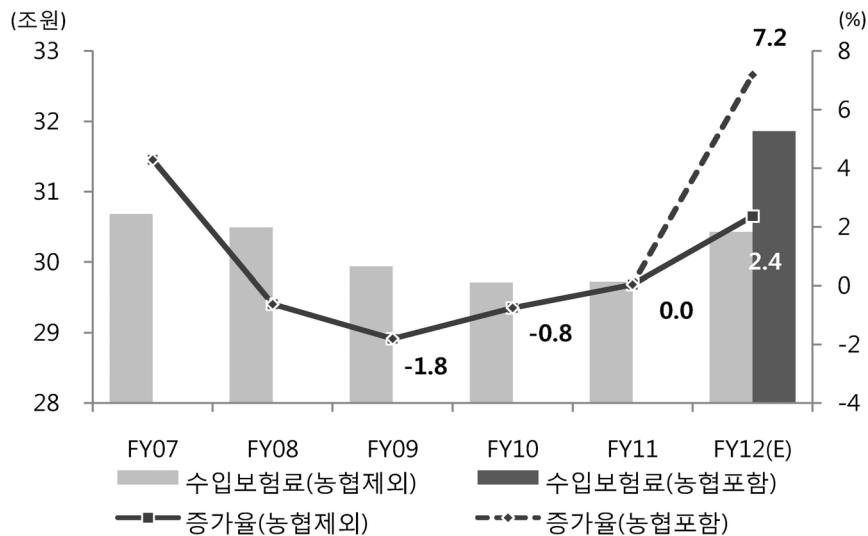
25) 생명보험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비과세혜택이 부여됨.

〈보장성보험²⁶⁾ 현황과 전망〉

■ FY2012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신규수요가 늘어나고 유지율 안정으로 계속보험료 유입이 증가하면서 2.4%(농협포함 7.2%) 성장을 기록함.

● FY2012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07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였음.

그림 Ⅱ-3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 최근 저축성보험 쏠림현상으로 인해 생명보험회사들이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1.9% 증가함.

■ FY2013 보장성보험은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인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암보험 등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 증가 등으로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6) 변액종신보험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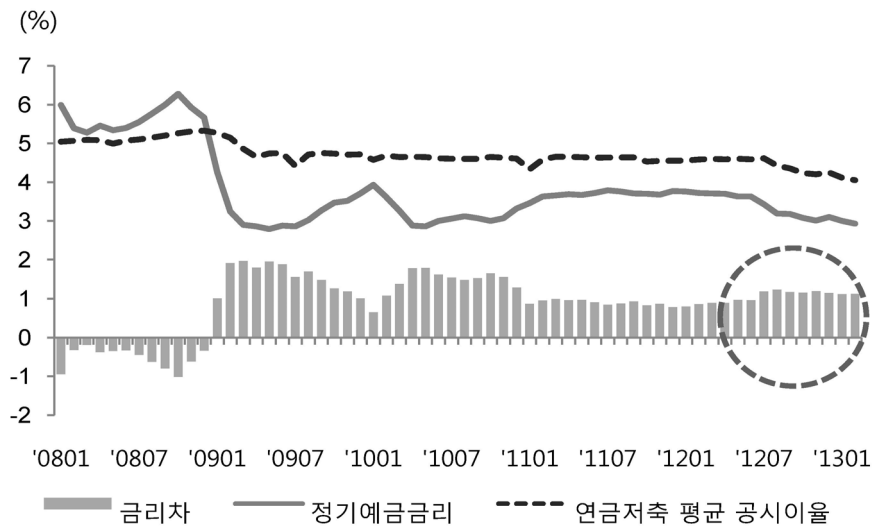
- 최근 경기악화에도 불구하고 보장성보험 해약률은 2.5%대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보험료의 지속적인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FY2013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 생명보험회사들은 통합보험, 연금전환 종신보험 등외에도 암보험과 같은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는 초회보험료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FY2013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2%대의 성장이 전망됨.
-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고가인 종신보험의 수요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여 2012년 말 FY2013 보장성보험이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견고한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2.7%로 상향 조정함.

〈저축성보험 현황과 전망〉

- FY2012 저축성보험은 변액저축성보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급증하면서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36.1%(농협포함 55.5%)의 고성장을 기록함.
- 생사혼합보험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 예적금상품 대비 상대적인 고금리와 세제혜택이 부각되면서 20% 내외의 고성장을 지속해왔으며, FY2012에는 세제개편에 따른 대규모 자금이동으로 52.5% 성장함.
 - 2012년 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세제혜택이 있는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급증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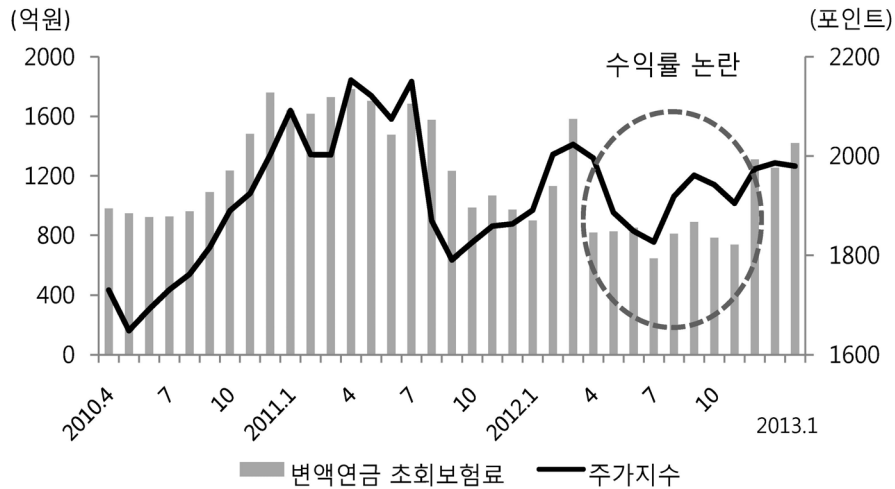
- 또한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이 은행 예적금 상품 대비 1%p 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방카슈랑스 중심의 수요 확대가 지속됨.

그림 II-4 저축성보험 공시이율 추이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2012년 8월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 강화가 발표되면서 65.9%의 급증세를 나타냈으며, 비과세혜택이 부각되면서 지속적인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 정체와 더불어 수익률 논란에 따른 부진으로 -0.1%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함.
 - 그러나 수익률 논란 이후 급감했던 변액연금 수요가 2012년 12월 이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5 변액연금 초회보험료 추이



■ FY2013 저축성보험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조정에 따른 비과세 저축수요 확대와 계속보험료 유입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로 인해 FY2012보다 낮은 8.1%의 성장이 전망됨.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변경에 따른 즉시연금, 생사혼합보험 수요는 2013년 과세가 확정되는 12월 이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은행예금 대비 생명보험 저축성보험의 상대적인 고금리 흐름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으며, 방카슈랑스를 통한 지속적인 수요 확대가 예상됨.
 - 한국은행은 2012년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중금리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FY2012 급증했던 즉시연금 일시납 수입보험료로 인한 기저효과로 성장률은 한자리 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변액저축성보험은 수익률 논란에 따른 수요위축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3% 수준의 낮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저축성보험은 2012년 말 세제개편 효과 소멸로 인한 기저효과로 FY2013 5.0%의 성장을 전망하였으나 2012년 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변경으로 인한 효과가 지속되어 성장률 전망을 3.1%p 상향조정함.

- 다만 FY2012 나타난 즉시연금 등의 일시납 급증 효과가 소멸되면서 FY2012 134.9% 증가를 나타낸 초회보험료는 기저효과로 인해 40%대의 감소가 전망됨.

표 II-4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E)		FY2013(기존전망)		FY2013(F)		CY2013(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장성	304,273 (318,598)	2.4 (7.2)	320,637	1.4	327,245	2.7	325,387	2.1
저축성	686,791 (784,594)	36.1 (55.5)	661,772	5.0	848,140	8.1	863,162	10.0
개인계	991,064 (1,103,192)	23.6 (37.6)	982,409	3.7	1,175,385	6.5	1,188,549	7.7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은 변액종신 포함, 저축성보험은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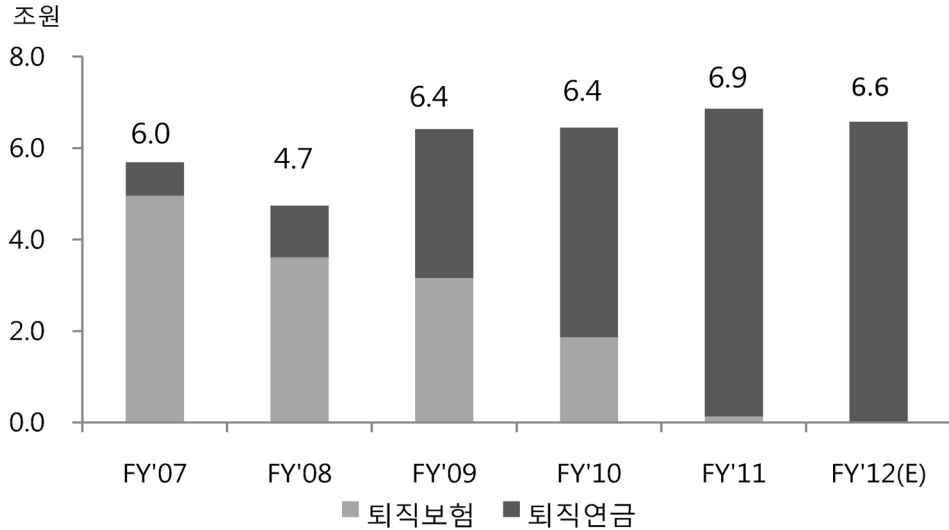
3) FY2012(E)의 괄호 안 숫자는 농협생명을 포함한 수치임.

〈단체보험 현황과 전망〉

■ FY2012 단체보험은 퇴직연금 신규가입이 정체되고 일반단체 보험의 수입 보험료 저성장세가 지속되면서 -3.6% 성장하였음.

- FY2010, FY2011 40%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이어갔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신규가입 정체와 업권 간 경쟁 확대 등으로 -2.4% 성장을 기록함.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말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비율은 86.5%로 나타나 신규가입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²⁷⁾
- 2012년 생명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2011년 25.6%에 비해 1.6%p 감소한 24.0%로 나타났으며, 업권 간 경쟁 확대에 의한 비중 감소 추세를 지속함.

그림 II-6 퇴직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추이



- 한편 FY2012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특별한 성장요인이 부재한 가운데 0.6%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함.

2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 5),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률, 50%수준에 근접.

■ FY2013 단체보험은 퇴직연금이 계속보험료 위주의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2.2%의 완만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퇴직연금 초회보험료는 FY2012 61.3% 감소하였으나 FY2013에는 기저 효과로 인해 10%대의 증가가 전망되며, 수입보험료는 기존 계약에 의한 계속보험료 위주의 완만한 성장(2.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로퇴법)은 보험설계사를 퇴직연금 모집인으로 등록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에 따른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편 IRP시장과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퇴직연금 시장의 신규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업권 간 경쟁에 따른 기존계약의 이동수요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표 II-5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E)		FY2013(기존전망)		FY2013(F)		CY2013(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개인	991,064 (1,103,192)	23.6 (37.6)	982,409	3.7	1,175,385	6.5	1,188,549	7.7
단체	73,752	-3.6	86,970	5.3	75,367	2.2	75,319	2.1
합계	1,064,816 (1,176,944)	21.2 (34.0)	1,069,379	3.8	1,250,751	6.3	1,263,868	7.4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FY2012(E)의 괄호 안 숫자는 농협생명을 포함한 수치임.

(김세중 선임연구원)

3. 손해보험

〈손해보험 개요〉

■ FY201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이 역성장한데다 장기손해보험과 연금 부문 증가세도 둔화되어 증가율이 FY2011 16.7%에 비하여 7.3%p 낮아진 9.4%를 기록함(농협손해보험 포함 시 12% 증가).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과 재물보험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 시행²⁸⁾에 힘입은 상해·질병보험 호조세로 14.2% 증가함(농협손해보험 포함 시 17.9% 증가).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 증가세 둔화(21.2%)와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수요 소진에 따른 퇴직연금 저성장(1.5%)으로 10.3% 증가에 머무름.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둔화, 기본 보험료 인하, 할인형 상품 판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1.7% 감소함(농협손해보험 포함 시 1.6% 감소).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특종보험의 양호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상, 화재, 보증보험의 저성장으로 5.7% 증가에 그침(농협손해보험 포함 시 10.3% 증가).

■ FY201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계속보험료 중심의 장기손해보험과 개인연금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이며 자동차보험과 퇴직연금이 저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8% 증가가 전망됨.

²⁸⁾ 단독상품 출시, 갱신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꾸준한 계속보험료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종목의 초회보험료 실적 부진이 예상되어 증가율이 10.3%로 둔화될 전망이다.
- 개인연금의 경우 고령화와 세제혜택 장점 부각 등 수요확대 요인이 존재하나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12.8% 그칠 전망이며, 퇴직연금은 신규 가입확대가 어려워 1.9% 증가가 전망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내수시장 위축, 보험료 인상의 어려움 등으로 1.7%의 저성장이 전망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특종보험 중심의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나 증가율은 FY2012와 유사한 6.1%에 그칠 것임.

■ 당초 예상보다 손해보험 대부분 종목의 FY2012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이를 감안하여 FY2013 전망치를 2.3%p 하향 조정함.

표 II-6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12(E) 농협제외		FY2012(E) 농협포함		FY2013 (기존전망)		FY2013(F)		CY2013(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손보	389,872	14.2	402,532	17.9	462,537	12.1	443,968	10.3	432,417	7.4
저축성	120,814	24.0	125,240	28.5	175,143	22.7	142,111	13.5	136,609	9.1
상해·질병	165,069	13.0	166,558	14.0	172,475	7.7	187,606	12.6	182,856	9.8
재물	32,721	12.9	37,520	29.4	40,168	8.6	39,502	5.3	38,746	3.3
기타 ²⁾	71,268	3.4	73,214	6.2	74,751	2.8	74,750	2.1	74,206	1.4
연금부문	73,818	10.3	73,818	10.3	91,080	16.1	79,736	7.9	77,833	5.4
개인연금	41,556	21.2	41,556	21.2	53,815	23.6	46,885	12.8	45,348	9.1
퇴직보험	9	-99.0	9	-99.0	-	-	-	-	-	-
퇴직연금	32,253	1.5	32,253	1.5	37,265	6.7	32,851	1.9	32,485	0.7
자동차	128,154	-1.7	128,279	-1.6	136,786	2.8	130,512	1.7	128,919	0.5
일반손보	74,953	5.7	78,220	10.3	86,383	7.9	82,989	6.1	81,738	4.5
화재	2,703	2.6	3,292	24.9	3,584	1.3	3,329	1.1	3,320	0.8
해상	8,029	-7.7	8,099	-6.9	8,595	3.9	8,536	5.4	8,473	4.6
보증	15,711	3.6	15,811	4.2	17,536	6.0	16,547	4.7	16,319	3.2
특종 ³⁾	48,510	9.3	51,018	14.9	56,667	9.6	54,576	7.0	53,626	5.1
전체	666,797	9.4	682,849	12.0	776,786	10.3	737,150	8.0	720,850	5.6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3)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장기손해보험〉

■ FY2012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과 재물보험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상해·질병보험의 양호한 증가세로 14.2%(FY2011 21.2%) 증가하였으며,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하면 17.9% 증가함.

-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FY2012 하반기 초회보험료가 마이너스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FY2011 55.8%에 비하여 크게 둔화된 24% 증가하

였고,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하면 28.5% 증가함.

- 저축성보험은 타금융권 대비 금리 경쟁력²⁹⁾을 가지고 있어 최근 3년 동안 방카슈랑스 채널을 중심으로 신규판매가 급증하였으나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로 신규판매가 위축되기 시작함.

● 상해·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 시행 이전 가입 수요가 확대되면서 초회보험료 유입이 증가하고 계속보험료도 안정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13%(FY2011 11.4%) 증가함.

- 농협손해보험 실적을 포함하면 14% 증가함.

● 재물보험 원수보험료는 제도 개선³⁰⁾에 따른 수요확대 효과가 점차 줄어들어 초회보험료가 감소하였으며, 계속보험료를 중심으로 12.9%(FY2011 33.1%) 증가함.

- 농협손해보험 포함 시 29.4% 증가함.

그림 II-7 원수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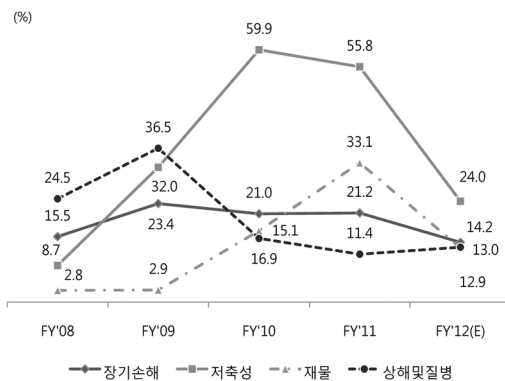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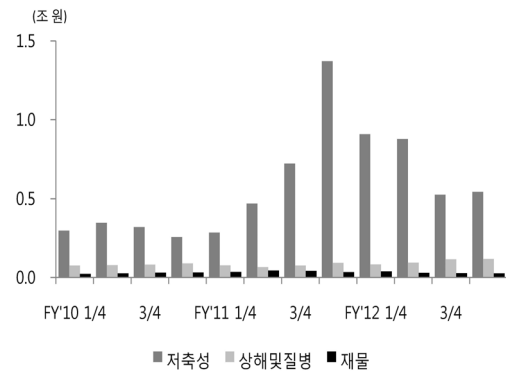


그림 II-8 분기별 초회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9) 보험업권의 저축성 상품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타금융권 저축성 상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금리 지속으로 금리경쟁력이 부각되었음.

30) 2009년 5월 「실화법」 개정과 2010년 3월 「화보법」 개정으로 재물보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됨.

■ FY2013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의 경우 꾸준한 계속보험료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종목의 초회보험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10.3%로 둔화될 전망이다.

-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타금융권 대비 금리경쟁력은 유지될 것이나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예상되어 13.5% 증가가 전망됨.
- 상해·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4월부터 본격적인 단독형 실손의료보험³¹⁾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험료가 저렴하여 초회보험료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며, 계속보험료를 중심으로 12.6% 증가가 전망됨.
- 재물보험 원수보험료는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³²⁾로 신규가입 확대 요인은 존재하나 최근 3년 동안의 고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5.3%가 될 전망이다.

■ 당초 전망보다 저축성보험과 재물보험 성장률은 9.2%p 하향 조정하고 상해·질병보험 성장률은 4.9%p 상향 조정하여 전체 장기손해보험 성장률전망치는 12.1%에서 10.3%로 하향 조정함.

- 당초 전망에서도 저축성보험 및 재물보험의 성장세 둔화를 예상하였으나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 반면, 상해·질병보험은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 시행 이전 가입수요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등 제도변화로 인한 효과가 존재하여 전망치를 상향 조정함.

31) 기존 실손의료보험이 다른 상품에 특약으로 부가 및 판매된 것과 달리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은 실손의료보험만을 주계약으로 단독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함.

32) 2013년 3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으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기존 다중이용업주들은 2013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하여야 함.

표 II-7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E)		FY2013(기존전망)		FY2013(F)		CY2013(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저축성	120,814 (125,240)	24.0 (28.5)	175,143	22.7	142,111	13.5	136,609	9.1
상해· 질병	165,069 (166,558)	13.0 (14.0)	172,475	7.7	187,606	12.6	182,856	9.8
재물	32,721 (37,520)	12.9 (29.4)	40,168	8.6	39,502	5.3	38,746	3.3
기타 ²⁾	71,268 (73,214)	3.4 (6.2)	74,751	2.8	74,750	2.1	74,206	1.4
장기 손보	389,872 (402,532)	14.2 (17.9)	462,537	12.1	443,968	10.3	432,417	7.4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3) ()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연금부문(개인 및 퇴직연금)〉

■ FY2012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 증가세 둔화와 퇴직연금 저성장으로 증가율이 10.3%를 기록하였으며, FY2011 24.8%에 비해 14.5%p나 낮아짐.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연금저축³³⁾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³⁴⁾ 등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21.2% 증가하였으나 최근 3년간 40%에 이르는 성장세에 비해서는 낮은 증가율임.

33)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을 의미하며, 손해보험의 개인연금이 연금저축에 포함됨.

34) 2011년 1월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제공되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대기업 퇴직연금 도입이 대부분 완료³⁵⁾되는 등 퇴직보험 및 신탁 효력기간 만료³⁶⁾에 따른 퇴직연금 전환수요가 소진되어 1.5%의 저성장을 나타냄.

그림 II-9 원수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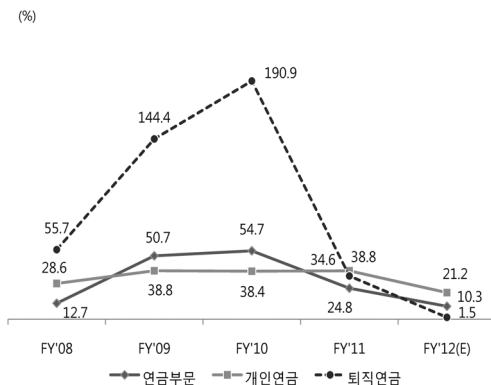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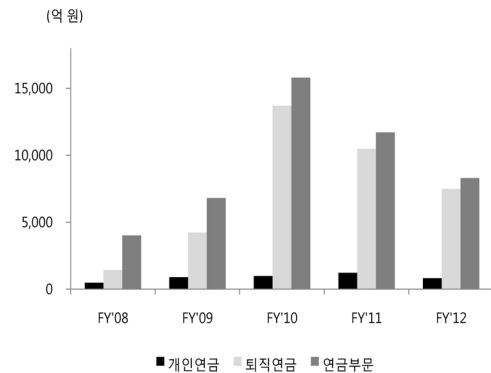


그림 II-10 초회보험료 추이



주: 연금부문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퇴직보험을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3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 성장세 둔화와 퇴직연금 저성장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어 7.9% 증가가 전망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소득공제 한도의 상향 조정 효과가 약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노후소득 대비 수요 및 세제 혜택의 장점이 존재하고, 계속 보험료의 꾸준한 유입도 예상되어 12.8% 증가가 전망됨.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근퇴법」 개정으로 보험설계사의 퇴직연금 모집이 가능해진데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축소³⁷⁾, IRP 시장 확대

35) 2012년 12월 말 5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6.5%로 추정됨(자료: 금감원 보도자료).

36) 2010년 말 퇴직보험 및 신탁의 신규가입 및 추가불입이 금지되고 세제혜택이 종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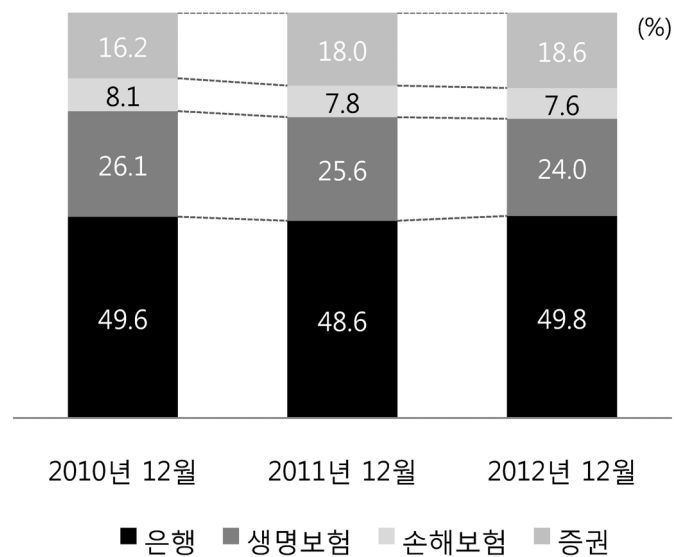
37) 손금으로 인정되는 사내적립 퇴직급여충당금이 매년 5%씩 축소되어 2016년에는 완전히 폐지됨 (2011년: 25%, 2012년: 20%).

등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도 지속되고 있으나, 금융업권간 경쟁 확대 및 신규수요 부진으로 1.9% 저성장이 전망됨.

-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수요가 소진됨에 따라 계약이전을 통한 확대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 당초 전망에서 확인하지 못한 퇴직연금 신규수요 부진 효과의 크기와 개인연금 증가율 둔화 정도를 확인한 만큼 이번 전망에서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치를 16.1%에서 7.9%로 하향 조정함.

그림 II-11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



자료: 금감원.

표 II-8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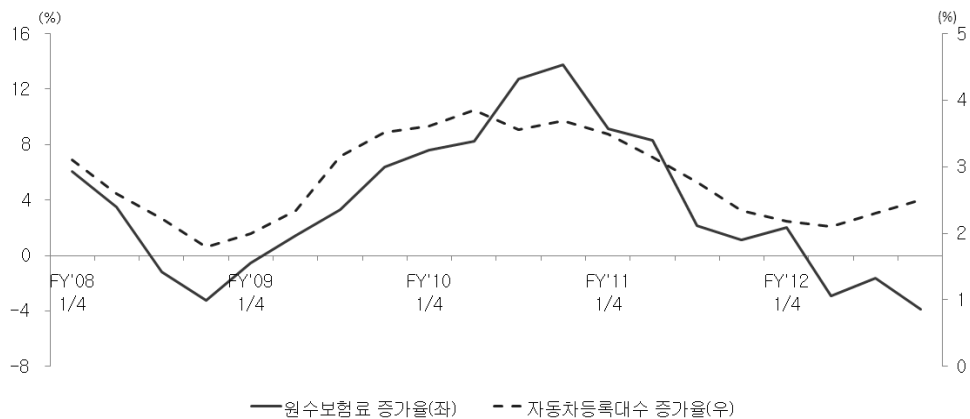
구분	FY2012(E)		FY2013 (기존전망)		FY2013(F)		CY2013(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개인연금	41,556	21.2	53,815	23.6	46,885	12.8	45,348	9.1
퇴직보험	9	-99.0	-	-	-	-	-	-
퇴직연금	32,253	1.5	37,265	6.7	32,851	1.9	32,485	0.7
합계	73,818	10.3	91,080	16.1	79,736	7.9	77,833	5.4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동차보험〉

- FY2012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둔화와 대당보험료 감소 등으로 -1.7% 증가하였고, 농협손해보험 포함 시에는 1.6% 감소함.

그림 II-12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및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자료: 국토해양부,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자동차보험 역성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며, 이는 경기둔화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둔화되고, 기본 보험료 인하, 주행거리 연동 특약 확대,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로 대당보험료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FY2013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보험료 인상외의 어려움도 존재하고 있어 1.7%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2013년 들어서면서 자동차 등록대수 월별 증가율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으나 경기둔화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손해보험회사들의 사고자 특별 할증률 인하 경쟁, 할인형 상품³⁸⁾ 판매 증가,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등 대당보험료 감소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 대당보험료 감소로 손해율 상승이 예상되나 서민 경제와 연관성이 큰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정률제 도입 등으로 2012년 상반기 하락하였던 자동차보험 손해율³⁹⁾은 대당보험료 감소로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당초 예상보다 FY2012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 인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FY2013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을 1.1%p 하향 조정함.

38) 주행거리 연동특약,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블랙박스 할인 특약 등이 있음.

39)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표 II-9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E)		FY2013(기존전망)		FY2013(F)		CY2013(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자동차	128,154 (128,279)	-1.7 (-1.6)	136,786	2.8	130,512	1.7	128,919	0.5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일반손해보험〉

■ FY2012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특종보험의 양호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상보험의 마이너스 성장과 화재 및 보증보험의 저성장으로 5.7% 증가에 그쳤으며,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할 경우 10.3%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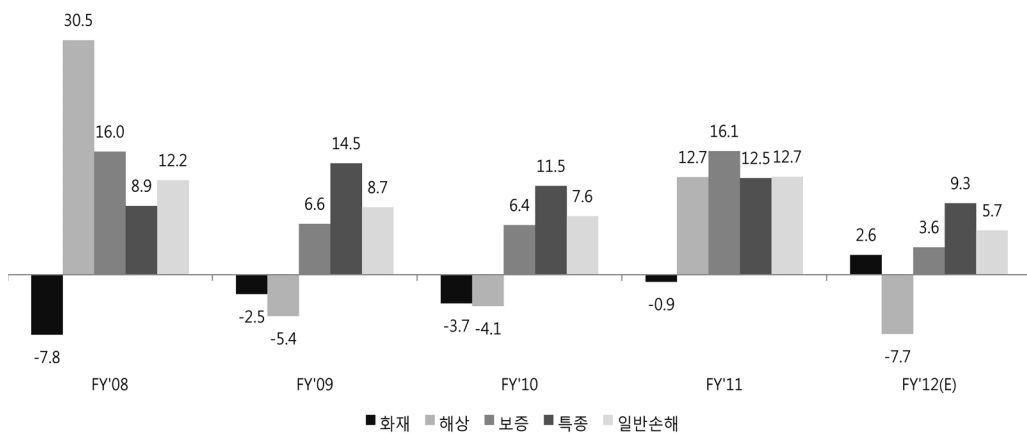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화보법」 개정⁴⁰⁾에 따른 의무가입 대상 확대 효과와 지속적인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2.6% 증가함.
 - 농협손해보험 포함 시에는 24.9%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농협손해보험의 화재보험 비중이 크기 때문임⁴¹⁾.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해양종합보험이 기저효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적하보험도 수출입 물동량 증가세 둔화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함에 따라 7.7%나 감소함.
 - 농협손해보험 포함 시 6.9% 감소함.

40)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화보법」)'이 2010년 3월 개정되어 2011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특수건물의 범위에 공유건물,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이 추가됨.

41) FY2012 농협손해보험 화재보험 원수보험료가 전체 화재보험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8%임.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경기 둔화로 인한 건설 관련 이행보증보험 부진과 저소득 계층의 보증보험 공급 확대를 위한 보험료 인하 효과⁴²⁾ 등으로 3.6% 증가에 그침.
 - 농협손해보험 포함 시 4.2% 증가함.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기술보험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타 특종보험이 양호한 증가세를 기록함에 따라 9.3% 증가함.
 - 농협손해보험 포함 시 14.9% 증가함.
 - 기술보험은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9.9%나 감소한 반면, 기타 특종 보험은 휴대폰 관련 보험 급성장으로 30.8%나 증가함.

그림 II-13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42) 금감원은 2012년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공급을 강화를 위하여 보증보험료 인하를 지도함(자료: 금감원 보도자료).

■ FY2013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특종보험 중심의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율은 FY2012와 유사한 6.1%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화보법」 개정과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등 수요확대 요인은 존재하나 특종보험의 종합보험과 장기 재물보험으로 그 효과가 분산됨에 따라 1.1% 증가에 그칠 것임.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수출입 물동량의 제한적 증가와 선박수주 부진 등으로 적하보험과 선박보험 저성장이 예상되나, FY2012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5.4%가 될 전망이다.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 및 토목 관련 이행 보증보험 시장의 제한적인 성장과 보증보험 공급 확대를 위한 보험료 인하 효과 지속으로 4.7% 증가가 전망됨.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상해보험, 책임보험, 기타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7% 증가가 전망됨.
 - － 종업원 복지확대를 위한 기업의 단체 상해보험 수요 증가 및 배상 책임·확대로 인한 책임보험 성장세가 지속될 것임.

■ 당초 예상보다 화재보험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난 반면 보증보험 증가세 둔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를 반영하여 FY2013 전체 일반손해보험 성장률 전망치를 7.9%에서 6.1%로 하향 조정함.

표 II-10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E)		FY2013(기존전망)		FY2013(F)		CY2013(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화재	2,703 (3,292)	2.6 (24.9)	3,584	1.3	3,329	1.1	3,320	0.8
해상	8,029 (8,099)	-7.7 (-6.9)	8,595	3.9	8,536	5.4	8,473	4.6
보증	15,711 (15,811)	3.6 (4.2)	17,536	6.0	16,547	4.7	16,319	3.2
특종 ²⁾	48,510 (51,018)	9.3 (14.9)	56,667	9.6	54,576	7.0	53,626	5.1
합계	74,953 (78,220)	5.7 (10.3)	86,383	7.9	82,989	6.1	81,738	4.5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3) ()는 농협손해보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최 원 선임연구원)

Ⅲ. 보험회사 경영과제

1. 미래환경 변화에 부합한 채널 전략

■ 보험산업 판매채널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 IT 기술 발달, 겸업화로 인한 경쟁 심화,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들 수 있음.⁴³⁾

- 전 세계적으로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보급이 확산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도 제공되면서 지속적인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짐.
-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들어 TM/CM 등 비대면채널 등장, 방카슈랑스 등 겸업화, 독립대리점(GA) 제도 도입 등으로 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또한, 2000년 이후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판매채널 추이가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보호가 더욱 강화됨.
 - 최근 들어 감독당국의 보험민원 감축방안, 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 등이 주요 이슈로 나타남.

■ 미래의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상품 단순화와 다양한 고객 접점(platform) 확보가 중요함.

43) PwC(2012), *Insurance 2020: Turning Change into Opportunity*.

- 페이스북, 트위터 등 고객접점이 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SNS)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네트워크에 대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
-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보험상품의 단순성, 투명성, 신속성에 대한 고객 니즈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품개발 및 판매에 이들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미래에는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판매채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통적 판매채널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함.
- 환경 변화에 대한 보험회사의 빠른 적응과 판매채널 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에 부합한 채널 전략이 중요함.
 - 고객과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면채널은 전문성을, 비대면채널은 비용 절감을 장점화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⁴⁴⁾
 - 아울러 각 채널의 특성에 적합한 전용상품 개발이 중요함.

(황진태 연구위원)

2. 개인정보관리를 통한 평판리스크 대비

- 20세기 후반 이후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인류사회는 정보사회로 변모함.
 - 정보사회는 개인정보의 상업화와 대량적 처리를 가능케 한 반면, 정보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야기함.

44) 안철경(2011), 『보험유통채널의 평가 및 신타렌드』.

-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8년 옥션(1,863만 명)을 시작으로 2011년 SK컴즈(3,500만 명)와 넥슨(1,320만 명), 2012년 KT(870만 명) 등 7,0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됨.

■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이용 시의 오남용 등이 문제화됨으로써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와 개별회사의 평판리스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는 최근 해킹과 내부직원을 통해 두 차례의 대규모 정보유출을 경험하였으나, 다행하게도 주민등록번호나 건강정보 등의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보험계약정보 이용실태 검사결과 정보의 오·남용도 문제⁴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설계업무나 자동차보험 현장출동서비스 등에 모바일 기기 활용이 커지고 있어 고객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규제강화⁴⁶⁾ 추세와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고객정보관리를 핵심경영요소로 인식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보험회사는 전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지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안거버넌스 체계의 확립이 시급함.
 - 또한 보안시스템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 부서와 감시부서 간의 크로스 체크 기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고객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이 내부직원에게 의해서도 발생되므로, 상시적

4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2.12.4).

46)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업의 고객정보 유출 시 보호의무 위반 사실 확인만으로도(보호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사태의 인과관계 입증 없이) 해당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함(디지털타임스, 2013.6.17.).

내부 실태조사와 철저한 처벌을 통한 인식 제고가 중요함.

- 대리점, 손해사정사 등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문서로 명기해 놓아야 하며, 정기적인 정보관리교육 및 보안점검을 통한 보안 강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김경환 수석연구원)

3. 재보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법제 마련

■ 재보험회사의 분쟁 및 지급거절과 지급불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과거와 달리 재보험계약 쌍방 간 최대신의성실의무 준수 유인이 감소하고 재보험분쟁이 잦아짐.
- 또한 재보험산업의 높은 집중도와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 하향 추세는 재보험의 상호연관성과 결합하여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손해보험의 재보험 활용도 및 집중도가 높아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가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와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의 관심과 자원배분이 미흡한 실정임.

- 2005~2011년간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종목별 평균 출재율을 살펴보면, 화재 49.6%, 해상 71.6%, 특종 57.9%로 일반손해보험의 재보험 활용도가 높은 편임.
- 재보험관리모범규준이 존재하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자원배분상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동시에 국제적 정합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 노력이 필요함.

- 첫째, 미수금, 집중도, 리스크 출처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및 보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적시 통보를 통한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 둘째, 자율규제기능을 통해 재보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보험거래에 대한 구속력 있는 법규체계를 마련해야 함.
- 셋째, 해외 소재 재보험회사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되, 재보험자산인정요건 등 간접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 해외 소재 재보험회사를 관리해야 함.

(송윤아 연구위원)

4.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추진 대비

■ 최근 감독당국은 2014년까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보험회사들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은 최소한의 준비금 적립과 충분한 자본보유를 보험회사에 요구하는 재무건전성 규제를 시행할 예정임.
- 이러한 계획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라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함과 동시에 국내 보험산업의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를 강화하려는 노력임.

- 보험회사들은 유상증자, 이윤확보, 위험가중치 조정 등을 통한 자율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는 보험료, 준비금, 자본에 관한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됨.

- 현행 재무건전성 규제는 보험료, 준비금, 자본에 관한 규제를 개별적으로 진행함.
 - 특히 보험료 간섭은 가격경쟁 대신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을 유발하여 상품이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함.
 -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는 보험회사의 보험료 결정에 대한 자율의사결정이 전제될 때 재무건전성 규제의 실효성을 보장함.
- 재무건전성 규제를 개별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규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거시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5. 저금리 장기화에 대비한 개인연금 리스크 관리 강화

■ 개인연금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비한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최근 보험회사들이 개인연금의 공시이율을 하향조정 하고 있지만 저금리의 영향으로 운용자산이익률이 적립금 평균이자율 보다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 2012년 1월~12월간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각각 4.8%, 4.5%로 전년도 대비 각각 0.5%p, 0.1%p 하락함.
- 동 기간동안 금리연동형 개인연금의 평균이자율도 각각 4.4%, 4.0%를 차지하여 전년도 대비 각각 0.4%p 하락함⁴⁷⁾.

■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의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저축성보험의 수익성 악화에 대비하여 현행 저축성보험 위주에서 보장성보험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상품 수익구조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운용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하되 최근 규제가 완화된 해외채권 등으로 다변화 또는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이익률을 개선함.
- 셋째, 금리기조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시이율 산출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시이율 및 최저 보증이율의 과도한 경쟁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이상우 수석연구원)

4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4.25).



부록 1. 2013년 수정 경제전망 설문조사 결과

- 설문결과 2013년 경제성장률은 우리원의 당초 전망치인 2.5% 이하를 예상하는 응답이 대다수였으며, 청년실업, 가계부채 부담 지속,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민간소비 둔화를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위협으로 지적하였음.
 - 2013년 민간소비는 우리원의 당초 전망치인 1.7%보다 소폭 하락한 1.5~1.7%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설비투자는 우리원의 당초 전망치인 3.6%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보다 소폭 하락한 2.4~3.6%를 예상한 의견도 다수 있었음.
 - 건설투자는 1.2~2.0%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음.
- 2013년 고용과 물가는 2012년 말 전망치인 실업률 3.3%, 고용률 59.4%, 소비자물가 상승률 2.5%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많았음.
- 2013년 경상수지는 당초 전망치 293억 8,000만 달러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수출 증가율은 우리원의 전망치 3.8%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보다 많았음.
 - 수입 증가율은 당초 전망치 3.8%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과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음.
- 2013년 회사채와 국고채 수익률은 우리원의 당초 전망보다 소폭 하락한 3.2~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당초 전망 수준 또는 소폭 상승한 1,035~1,095원을 예상하는 응답이 대다수였음.



부록 2. 생명보험회사 설문조사 결과

■ 설문결과 FY2013 수입보험료에 대하여 모든 응답자가 기저효과로 인한 저성장을 전망하고 초회보험료는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함.

- FY2013 저성장의 이유로는 FY2012 저축성보험의 고성장을 이끈 제도변화 효과 소멸을 꼽았으며, FY2013에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 주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함.
- FY2013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주요 제도 변화로는 RBC제도 강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축소, 이연신계약비 한도 축소, 의료연금상품 제도 도입 등이 제시됨.

■ 종목별로는 전반적으로 보장성보험의 1~2%대 완만한 성장,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기저효과로 인한 저성장, 단체보험의 소폭 성장세 회복이 전망됨.

-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 쏠림현상 타계를 위한 보장성보험 확대노력이 가장 큰 성장요인으로 꼽혔으며, 가격이 저렴한 건강보험의 수요확대를 예상함.
- 생존보험은 저금리로 인한 저축수요확대와 방카슈랑스를 통한 성장이 예상되었고 변액연금의 경우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수요가 변동 할 것이나 소비자 신뢰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함.
- 생사혼합보험은 저금리와 세제혜택의 강점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대답과 성장요인 소멸이라는 응답으로 나뉘었으며, 변액생사혼합보험은 주식시장 침체로 저성장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단체보험 중 퇴직연금은 신규수요 창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이 많았으나 제도적 지원에 따른 성장을 예상하는 응답도 있었음.



부록 3. 손해보험회사 설문조사 결과

-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 손해보험회사들은 FY201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함.
 -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계속보험료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과 퇴직연금은 저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 손해보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손해보험이 여전히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고 응답함.
 - 장기 저축성, 장기 상해 및 질병, 장기 재물보험의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제도 변화* 효과가 소진되어 초회보험료 증가세가 둔화되고 계속보험료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 *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상향 조정, 2010년 말 퇴직보험 및 신탁의 신규가입 및 추가불입이 금지되고 세제혜택이 종료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함.
 - 대당보험료 변화를 저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언급함.
 - 손해율은 대당보험료 감소로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부록 4. FY2013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전망

종목	FY2011		FY2012(E) 농협제외		FY2012(E) 농협포함		FY2013(F)		CY2013(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개인보험	113,358	8.7	258,769	128.3	316,505	179.2	185,990	-41.2	252,528	-20.2
보장성	5,633	-5.7	5,741	1.9	6,468	14.8	6,649	2.8	6,739	4.2
저축성	107,724	9.5	253,028	134.9	310,037	187.8	179,342	-42.2	245,789	-20.7
단체보험	35,153	15.3	14,193	-59.6	14,193	-59.6	15,652	10.3	15,454	8.9
합계	148,511	10.2	272,962	83.8	330,698	122.7	201,642	-39.0	267,982	-19.0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은 변액종신 포함, 저축성보험은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을 포함함.



부록 5. FY2013 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전망

종목	FY2011		FY2012(E) 농협제외		FY2012(E) 농협포함		FY2013(F)		CY2013(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손보	34,048	94.5	34,803	2.2	37,572	10.4	31,600	-15.9	31,478	-16.2
저축성	28,476	132.9	28,501	0.1	31,112	9.3	25,370	-18.5	25,099	-19.3
상해·질병	3,127	-3.6	4,098	31.1	4,193	34.1	4,068	-3.0	4,233	1.0
재물	1,565	42.5	1,228	-21.5	1,256	-19.7	1,222	-2.7	1,212	-3.5
기타 ²⁾	880	-6.5	976	10.9	1,012	14.9	939	-7.2	935	-7.6
연금부문	11,704	-25.9	8,286	-29.2	8,286	-29.2	8,224	-0.8	8,112	-2.1
개인연금	1,226	24.2	814	-33.6	814	-33.6	869	6.8	854	4.9
퇴직보험	-	-	-	-	-	-	-	-	-	-
퇴직연금	10,478	-23.5	7,472	-28.7	7,472	-28.7	7,355	-1.6	7,257	-2.9
합계	45,752	37.4	43,090	-5.8	45,859	0.2	39,824	-13.2	39,590	-13.7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저자약력

■ 총 괄

윤성훈(선임연구위원)

■ 경제·금융

경제총괄 윤성훈(선임연구위원)

경제·금융 채원영(연구원)

■ 보험산업

보험총괄 전용식(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세중(선임연구위원)

손해보험 최 원(선임연구위원)

CEO Report 2013-0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발 행 일 2013년 7월

발 행 인 강 호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 쇄 소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 2999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3775-9016)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